



## 멜로의 여왕 전도연...첫 멜로 도전 공유 치명적 로맨스가 온다

영화 '남과 여' 내달 개봉 앞두고 제작보고회

감독은 “가슴 아픈 멜로영화”라고 했다. 남자 주연 배우는 “핀란드의 하늘색 같은 영화”라고, 상대 여자 배우는 “차가움과 따뜻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했다.

정통 멜로를 표방한 영화 '남과 여'를 두고 한 말이다. 19일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남과 여'는 핀란드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서울에서 재회하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문제는 두 남녀가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것.

잘 나가는 디자이너 가게 대표인 상민(전도연)은 이들의 국제학교 캠프 참석차 핀란드에 갔다 한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는 아내, 딸과 함께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건축가 기홍(공유). 둘은 같이 캠프장으로 가는 길이 폭설로 끊기자 아무도 없는 숲 속 오두막에서 머물게 된다. 온통 하얀 눈밖에 없는, 꿈과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누군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빠져든다.

8개월 후 서울에서 둘은 다시 만난다. 기홍은 상민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상민은 자신의 일상을 헤집고 들어오는 기홍에 견줄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든다.

이윤기 감독은 “정통 멜로를 하고 싶었다”며 “평범한 이야기인 듯하면서도 영화적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연출의 변을 밝혔다.

영화 제목인 '남과 여'는 처음에 가제였다가 본 제목으로 굳어졌다고 했다. 이 감독은 “더 나은 제목이 없었다. 영화를 직설적으로 설명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유는 “핀란드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 3~4일 흐리다가 하늘이 파랗 때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라며 ‘남과 여’를 “핀란드 하늘 같은 영화”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유에게는 첫 멜로영화다. 그는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전도연이라는 배우와 같이 연기하고 싶었는데, '남과 여'는 이 두 조건을 충족한 영화”라며 출연 계기를 말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읽고 덮자마자 소속사에 출연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기홍이 극화된 모습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을 직한 느낌으로 보이길 바란다”며 “연기를 했지만 연기를 안 한 것 같이 연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유는 영화에 나오는 설정처럼 미국 뉴욕이라는 낯선 곳에서 낯선 여성과 만난 적이 있다며 그런 종류의 ‘판타지’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했다.

영화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랑을 ‘불륜’이라고 말한다.

“멜로의 여왕” 전도연은 이에 대해 “사랑의 유형은 굉장히 많다”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 전에 “굉장히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건조한 스타일의 감독이 어떻게 풀어낼까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가 ‘남과 여’를 “차가움과 따뜻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규정한 이유이기도 했다.

공유는 “이 둘간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이 둘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섬세한 감정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사랑은 여러 색깔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다”며 전도연과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남과 여’는 다음달 중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 “3년 공백, 나를 되돌아본 시간”

OCN ‘동네의 영웅’ 백시훈 역 박시후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박시후(38)가 만 3년 만에 국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시후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OCN 주말드라마 ‘동네의 영웅’ 제작발표회에 참석, “이런 자리에 다시 설 기회를 얻어 꿈꾸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국내 연기활동) 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작품에 좋은 연출자가 출연을 제의해서 이번 작품을 하게 됐다”면서 “정말 좋은 기회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촬영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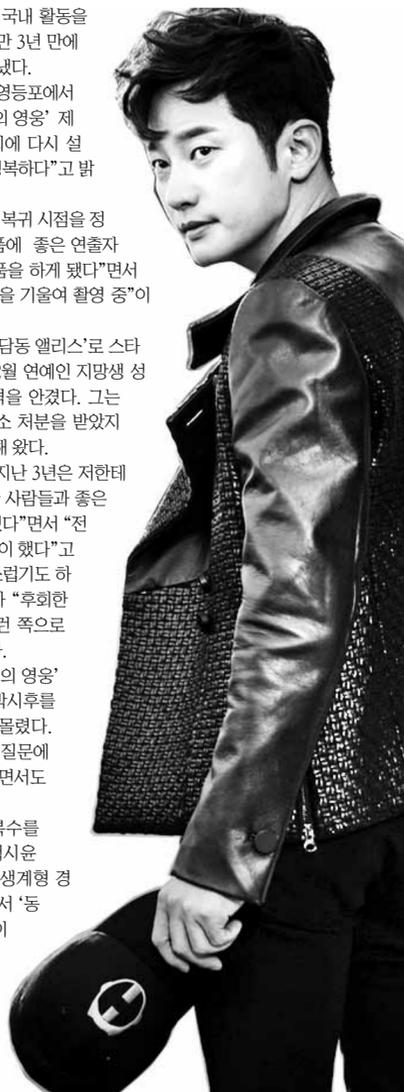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청담동 엘리츠’로 스타덤에 오른 박시후는 2013년 2월 연예인 지방생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그는 고소 취하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한동안 중국 활동에 주력해 왔다.

박시후는 공백기에 대해 “지난 3년은 저한테는 (삶을) 돌이켜 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등산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이라고 말을 이어가다가 “후회한 적은 없고 앞으로의 활동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동네의 영웅’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박시후를 취재하고자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박시후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질문에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꽤 상기한 표정이었다.

‘동네의 영웅’은 사적인 복수를 준비하던 전직 비밀요원 백시훈(박시후 분)이 취업준비생, 생계형 경찰과 함께 이웃을 돕게 되면서 ‘동네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KBS에서 ‘추노’, ‘한성별곡’ 등을 연출한 곽정환 PD가 만든다. 드라마는 23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재)	40 자유만만		10 SBS 뉴스 30 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	00 KBS네트워킹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안녕 우리말	00 수목드라마 (창사의 신 - 객주2015) (재)	00 주말 특별기획 (내 딸 김사할)(재)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집 50 SBS12뉴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2016 지구촌 어린이 돌기 희망 더하기	45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2 00 이웃집 살 55	00 이웃집 살 55 55 세계인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이언영의 직언직설	00 미국의 부활 55 트든생활제도(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식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10 제20대 총선 정감정책연설 (다들아민주당) 30 야생일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필동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까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먹거리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포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창사의 신 객주 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한 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아들의 전쟁)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백 더 콘서트	10 KBS 신년특선 (북극 대여정 백야의 땅 13,000km)	10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희망로드 대장정 스페셜	30 MBC 뉴스 24 55 나눈 행복	35 나이트 라인

###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글로벌 에버 찾아 삼만리
05:30 건강하 아침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0:40 다큐 오늘
05:40 다문화 사랑	12:10 사선에서	16:45 당동명 유치원 1~3(재)	(환상의 땅, 아이슬란드)
06:10 세계의 눈	13:0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7:45 로보가 폴리	(황금빛 미소의 땅, 미얀마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사이틴-지구인 자력평가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	-3부 걸로, 소수민족을 찾아서)
07:45 로보가 폴리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동 슈퍼왕스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	14:0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2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2	(발품팔아 오지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2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25 아웅따웅 귀여워	21:50 EBS 다큐 프리킥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4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3	(녹색동굴)
09:40 부모-고수다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텔라드 점대변	22:45 극한직업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5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4	23:35 장수의 비밀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24:10 한국영화특선
11:10 다큐 오늘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축제)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0일 (음 12월 11일 辛丑)

<p><b>子</b></p> <p>48년생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60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72년생 장애 요소만 제거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함도 무방하다. 84년생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2, 40</p>	<p><b>午</b></p> <p>42년생 상대적이지 치세를 잘 해야 하느니라. 54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된다. 66년생 생각지 못했던 점이 돌발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길한 작용을 하게 된다. 78년생 뜨거운 화젯거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9, 35</p>
<p><b>丑</b></p> <p>49년생 소를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61년생 속마음을 이해해 줄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73년생 한 번 해가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으니라. 85년생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4, 56</p>	<p><b>未</b></p> <p>43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55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지속적으로 인하라. 67년생 이면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따로 있느니라. 79년생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간다른 마음 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05</p>
<p><b>寅</b></p> <p>50년생 더불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소되리라. 62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74년생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려 그만이다. 86년생 잘 살 퍼보면 분명히 쓸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38, 63</p>	<p><b>申</b></p> <p>44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고 안전하다. 56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야겠다. 68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80년생 오행에 의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4, 70</p>
<p><b>卯</b></p> <p>51년생 맹목적이러면 무의미하다. 63년생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75년생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니 당해 문제의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87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09, 39</p>	<p><b>酉</b></p> <p>45년생 도중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가 나타날 수 있다. 57년생 암투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다. 69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81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28, 47</p>
<p><b>辰</b></p> <p>40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52년생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니 단단히 마음먹고 있어야겠다. 64년생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76년생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88년생 사소한 장애 요소는 개의치 말자. 행운의 숫자 : 21, 10</p>	<p><b>戌</b></p> <p>46년생 경사가 나서 파도처럼 마담이로다. 58년생 하루 종일 때 달려서 진땀을 뺀 일이 생길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담벼만 한다. 70년생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 82년생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70, 80</p>
<p><b>巳</b></p> <p>41년생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하리라. 53년생 최선을 다했을 때면 길한 방향으로 변화하겠다. 65년생 침착하게 일하라. 77년생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손을 쓰면 소용이 없다. 89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1, 51</p>	<p><b>亥</b></p> <p>47년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리라. 59년생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 71년생 분명명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83년생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렵다. 행운의 숫자 : 17, 8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